

남종산수화 전통의脈...한국 근·현대미술사 흐름 조망

‘임진 허문 초대전과 윤림산방 5대전’...오는 27일부터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

국내 최초 윤림산방 5대 작가 7명 작품 ‘한자리’

조선 말기 선대부터 현재까지 윤림산방 미술 화맥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소치 허련이라는 한 화가를 기점으로 5대손까지 200여 년의 화업을 이어오는 건 세계미술사에서도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단순한 기능이나 기술 전수로 이어지는 전통 공예가 아닌 순수한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순수예술 분야에서 대물림한다는 것은 희귀하고 귀중한 일이다.

직계 화맥 5대에 걸쳐 모두 한국미술사에 큰 획을 그을 만한 작품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윤림산방 5대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전시가 오는 27일부터 4월8일까지 서울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에서 펼쳐진다. 현재 진도 윤림산방 기념관에서조차 보기 어려운 5대의 화업을 모은 것.

박복신 인사아트프라자 회장은 “한국 남종화의 대를 잇는 윤림산방 5대 전시는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공부할 기회가 될 것이며, 한국 수묵화의 위상을 다지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윤림산방은 1대 소치 허련 선생이 그림을 그렸던 화실 이름을 뜻한다. 지금은 허씨 일가가 일군 장구한 화맥을 상징하는 당호를 뜻하기도 한다.

소치 허련을 시작으로 2대 미산 허형, 3대 남농

허건, 임인 허림, 4대 임진 허문 그리고 5대 허진 와 허재 등은 조선 말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 미술사에 큰 획을 이뤘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적인 수묵산수 기법을 초월하는 ‘윤문산수화’를 창안한 4대 ‘임진 허문 초대전’을 특별하게 구성했다.

윤림산방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만의 조형적인 해석, 즉 개별적인 형식의 완성을 목표로 해왔기 때문이다.

2층 전시장에서는 윤림산방 5대에 걸친 작품 총 40여점을 감상할 수 있다.

한국 남화의 전통을 세운 1대 소치 허련을 비롯해 남종 문인화의 품격을 세운 2대 미산 허형, 서정적인 실경으로 신남화를 제창한 3대 남

농 허건, 타고난 미적 감각의 요절한 천재화가 3대 임인 허림, 독창적 선연법의 운무산수 4대 임진 허문, 역사인식과 인간의 내면적인 욕망을 형상화한 5대 허진, 실경의 틀을 깬 5대 허재까지 5대 총 7명 작가의 독창적인 작품 성향을 만나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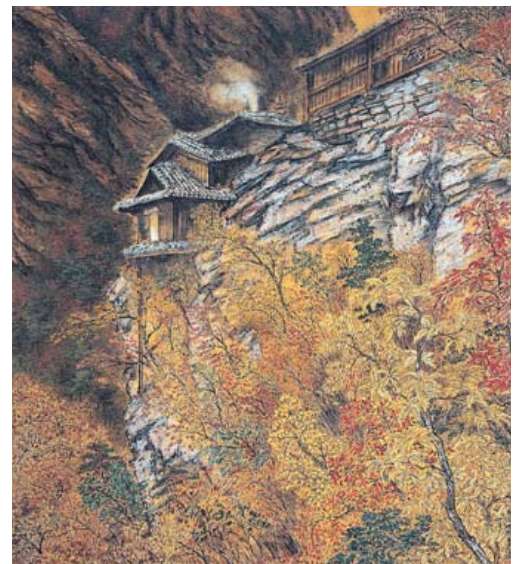
구본호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 관장은 “남종 산수화의 변화 과정과 한국 근대미술사의 흐름을 읽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윤림산방은 소치 허련 선생을 비롯해 약 200여 년 5대에 이르기까지 화업을 이어온 미술사에 유례 없는 화맥이다.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소치 허련작 '추경산수도'



미산 허형작 '운중석암'



남농 허건작 '금강산 보덕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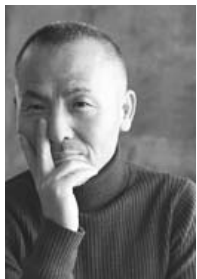
임진 허문작 '산운'



허진작 '이중용합동물+유포피아2020-2'

꿈

강인의 개념사상체



작업하다 지쳐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도 생사와 같이 구름을 그릴 때가 종종 있다.

일종의 강박상태라 생각해 보지만 '절실함'일 때가 더 많다. 꿈속에 나타나는 표상은 현실 체험과 관련이 있는데 융환·치환(置換)·상징·형상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꿈의 특징은 현실계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표상이 나타난다. 그 결과 현실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꿈의 세계에서 해결하려는 시도가 내 작업을 통해 나타난다.

나는 일란성 쌍둥이 중 동생으로 태어났다. 형님은 아버지가 별이 켜져서 빛나는 밤을 태몽으로 꾸어 이름에 별 '성'(星)자가 들어갔다.



'순수형태-생동(生動)'

나는 어머니가 고백이 긴 통제가 안 된 황소를 끌고 맑은 개울을 건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만상의 구름이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지는 꿈을 꾸어 구름 '운'(雲)자인 이름을 가지게 됐다. 운명을 생각할 때면 부모님의 태몽에서 이미 내 화업의 메타포로서 구름을 얘기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

어머니가 영면하기 전날에도 예지몽을 꾸었다. 어머니가 수의를 입으신 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 꿈이었고, 입관식 날 밤에는 어머니가 주신 보자기 매듭을 풀자 하얀 양떼구름이 파란 하늘로 피어오르는 꿈이었다. <대인통에서 화가강운>

꿈을 '인간의 영적(靈的)인 활동의 산물'이라고 믿는 나는 어머니 가시는 마지막 길에 주신 구름이 미래에 전개될 어떤 작업의 전조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구름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정에서 청년기에 마주한 구름은 꿈과 방랑을 상징했다면, 중년기의 구름은 인간이라는 미약한 존재로서 수행과 겸손이었다. 그리고 지금 육체와 마음의 화음(和音)이 변함으로써 구름이라는 화성(和聲)이 달라졌다.

이순(耳順)에 들어선 구름은 과연 어떤 구름으로 표현될지 내 자신을 믿어본다.

소설가 김영하의 '클래식과 삶'

마티네콘서트 '11시 음악산책'...26일 광주예당 소극장

인문학과 클래식을 접목한 마티네 콘서트 '11시 음악산책' 올해 첫 공연이 오는 26일 광주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공연 해설은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 '빛의 제국',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산문집 '여행의 이유' 등으로 사랑 받은 김영하(사진) 작가가 나선다. 이날 공연에서 작가는 삶 곳곳에서 스며든 아름다운 클래식과 음악에 얽힌 에피소드, 문학,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전 월간 객석 편집장 및 음악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국지연 컴퍼니 연 대표가 작가와 관객, 연주자를 이어줄 진행자로 무대에 선다. 바이올린 임성운, 바이올린



나승준, 비올라 양혜경, 첼로 이호찬 등 국내외에서 활

동을 하며 주목받고 있는 연주자들의 앙상블을 만날 수 있다. 연주곡은 드보르작의 현악4중주 '사이프러스' 5번 안단테, 모차르트 현악4중주 제14번 '봄' 1악장, 피아졸라 '망각', 슈베르트 '저녁별' 등이다.

관람은 7세 이상 가능하며, 자세한 공연 정보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장권은 R석 2만원, S석 1만원이다. /최명진 기자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